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27)

반순복비(反唇腹誹)

입을 빼죽 내미는 것은 배속으로 조정을 비방하는 것이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교전연구소 소장)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말로는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할 수 있으니 그저 입을 빼죽 내민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 입을 빼죽 내미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죄를 줄 수 있을까?

아무리 제왕(帝王)이라고 하여도 이것을 꼬투리 잡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라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육을 먹는다.'는 속언(俗諺)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래도 숨을 쉬고 살 수 있고, 그것이 사회를 정화(淨化)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라 할지라도 언관(言官)을 두고 있어서 잘 못된 정치가 있다면 이를 비판하도록 하였다. 송대(宋代)에 언관들이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대단히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 같다. 언관은 풍문(風聞)을 근거로 하여서도 비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풍문이라 진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가짜뉴스 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가짜 뉴스일 가능성 있는 풍문을 근거로 비판할 수 있었다니 언관에게 주어진 비판 기능은 대단하다 할 것이었다. 이러한 처지이니 더욱 입을 빼죽 내밀었다는 것을 가지고 불평분자로 몰아서 처벌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왜 이렇게 언로(言路)를 열어 놓았을까? 두 말할 것도 없이 권력자 스스로 망하지 않으려는 때문이었다. 권력이 부패하면 정권은 무너지고, 부패한 왕조는 멸망하는 것을 역사에서 수 없이 보아왔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망하지 않으려면 부패하거나 불공정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언로를 개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언로의 개방은 따지고 보면 왕조 대라고 하더라도 권력자나 정권이 스스로 망하지 않으려는 제도적 장치였다.

그런데 한(漢) 무제(武帝)시절에 언로를 개방하기는커녕 입을 빼죽 내미는 것조차 뱃속으로 조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반순복비(反唇腹誹)의 죄라는 것을 만들어 그런 사람을 죽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권력자나 잘 못된 정책을 비판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도 그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야기는 한무제 사절로 돌아가야 한다. 한무제는 겉으로는 흉노를 공격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한 군주로 칭송되기는 하지만 사실 한(漢) 왕조를 기울여지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한무제는 북쪽에 있는 흉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하여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쳤다. 그래서 한 왕조의 영향력을 실크로드까지 확장됐지만, 그곳은 유목생활을 하는 곳이어서 농경을 주로 하는 한왕조로서는 가지고 있어 보아야 소용없는 땅이다. 그런데도 아무 실익이 없는 전쟁을 한 것이다. 다만 흉노를 훈내주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어쨌거나 한무제의 흉노 공격은 계속되었고, 이 때문에 흉노는 타격을 입었겠지만 한왕조도 역시 타격을 심하게 받았다. 전쟁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정(外征)으로 막대한 재정(財政)적 부담을 겪지만 내정(內政)도 만만치가 않았다. 남부지역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흉수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도 모두 재정을 투입해야만 하는 일들이었다.

외정과 내정의 난제는 한왕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동안의 잘 못된 외정(外征)도 반성해서 고쳐야 하고, 내정도 바로 잡아야 했지만 그러한 반성은 없이 그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게서 수탈하여 왕조의 재정적 위기를 넘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취한 대책은 화폐개혁이었다. 종전에 사용하던 반량전(半兩錢)을 삼수전(三銖錢)으로 바꾼 것이다. 반량전이라는 동전에는 동(銅) 12수(銖)가 들었는데, 동전을 삼수(三銖)만으로 만들어서 같은 가치로 유통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동전을 주조하는 권한을 가진 조정에서는 과거의 동전 반량전 한닢으로 삼수전 네닢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니까 정부의 재정은 별안간에 네 배 불어난 것이다. 정부의 재정은 네 배로 불어났지만 그 부담은 전부 동전을 사용하여 생활해야 하는 백성들이 짊어졌다.

백성들은 과거의 4분의 1 밖에 안 되는 동전을 받고 생산한 물건을 팔아야 했으니 그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도 너무했다 싶었는지 1년이 안 되어 삼수전을 오수전(五銖錢)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반량전을 사용하던 때에 비하면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러자 꾀 있는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반량전을 녹여서 5수전을 만들었다. 도주(盜鑄)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처벌하였다. 잘 못된 경제정책이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조정의 재정이 튼튼하게 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또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과거에는 없던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또 돈 있는 사람들에게 조정에 돈을 빌려주면 벼슬을 주겠다고 하면서 관직을 팔기까지 했다. 돈 있는 사람에게서 수탈하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귀족이나 제후(諸侯)들은 1년에 한두 번씩은 황제를 알현하거나 제사를 지내는데 동참하는데, 이때에 선물을 올렸다. 이를 이용하여 또 이들로부터 재물을 수탈하려고 하여서 백록피폐(白鹿皮幣)라는 화폐를 만들었다. 흰 사슴 가죽을 사방 한자로 잘라서 사방에 수를 놓아서 이를 백록피폐라고 하면서 한 장에 40만전으로 가격을 매기고, 제후나 귀족들은 천벽(薦璧)할 때 반드시 백록피폐에 선물을 올려서 바치라고 하였다. 귀족과 제후들에게 엄청난 강매를 하여 재정을 확충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경제 정책은 무리한 흉노정벌에서 왔지만 많은 백성들과 귀족들로부터 반발을 불러 왔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대놓고 반대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정책의 시행을 꺼렸을 것이니 이 정책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자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시 각종 법조문을 만들어서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면서 공포정치를 이어갔다. 그리하니 이제는 공포정치를 잘 추진할 법리(法吏)들이 필요했고, 이들이 출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흉노를 치려고 해서 군대를 대우하려 했고, 그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놀이 잘하는 흥리(興利)하는 장사꾼을 채용하더니 다시 범조문으로 백성들을 조이는 법리(法吏)가 세력을 잡게 된 것이다. 외정에서 시작한 잘 못된 정치는 법으로 백성들을 혹독하게 처리하는 관리들을 낳는 풍설험과가 나타난 것이다.

사실 한(漢) 왕조 초기에도 법(法)은 있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법리(法吏)는 하급관원이었고 정책을 다루는 고급관원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무제의 시대에 오자 덕을 강조하고, 덕치를 내세우는 사람은 고급관직에 오를 길이 막히고 과거에 하급관원에 머물던 아무런 철학도 없는 법리(法吏)가 정권을 쥐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다루는 장탕(張湯)이 재정을 다루는 앙이(顏異)와 백록피폐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앙이는 백록피폐를 유통시키는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면서 반대하였지만 소용 없이 백록피폐는 시행되었다. 백록피폐가 시행되었는데, 앙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가 백록피폐에까지 이어졌다. 앙이는 겉으로 대놓고 백록피폐를 비판할 수 없자 입을 빼죽 내밀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장탕은 '앙이가 백록피폐에 대하여 입을 빼죽 내밀었다'는 것은 고급관원으로 조정의 정사를 뱃속으로 비방한 것이다.'라고 죄를 덮어 씌워 사형에 처하였다. 그 후로 아무도 조정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졌다. 모두 에스맨 조정에 그득하였다. 비판기능이 없어졌으니 잘 못된 정책은 걸러지는 일이 없이 시행되었고, 황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만 알고 제멋대로 행동하였다.

역사는 사마광은 진시황이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그 뒤를 이은 2세 황제 호해가 나라를 망쳐 먹은 것과 한무제가 이처럼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이 한 왕조를 망쳐 먹은 것과는 달리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권용은 죽친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권기 천백년사에 대해 문의 전화를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동권씨 모원록(安東權氏 慕源錄)" 저작자 권상규 죽친은 서문에서

권기 천백년의 역사책 발간 관련 자료 답지

대종회에서는 권기 천백년의 역사책 발간사업 계획(8월 1일자)에 따라 8월 25일 제1차 편집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권기 천백년의 역사책 발간사업도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에 거주하는 권용은(안산대학교 명예교수) 죽친께서 1967년 권상규(權相奎) 죽친이 발간한 "안동권씨 모원록(安東權氏 慕源錄)"이라는 서책을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본보의 권기 천백년사 역사책 발간 사업 기사를 보고 대종회에 우편으로 보내왔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권용은 죽친은 "이 귀중한 자료를 집에서 혼자 보관하는 것보다는 대종회에서 권기 천백년사 역사책 발간 사업에 조언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자를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고 능동장학회를 설립한 권승렬 장관이 "옛날에는 내 집 일은 물론 남의 집 일까지도 서로 잘 알기 위해서 일부러 보학을 공부하기까지 해 왔으나 근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 윗대 어른들의 일들을 모르고 지내온 형편이었더니 이제 이에 착안한 죽친 상규씨가 본서를 편술하고 내게 서문이나 추천의 글을 지어 달라가니... 가히 죽친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하고자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권오병 장관 또한 "우리 권문의 내력을 잘 알 수 있겠으므로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추천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권용준(동서의원장) 재경 안동권씨 회수회장도 "안동권씨 모원록은 우리 권문의 역사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우리 문중에 필요한 저술로써 타문중에서는 아직도 시도되지 않는 귀한 책자로 생각되어 경향의 각 죽친들은 가가호호한 권씨 상비하고 자주 읽어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안동권씨 모원록(安東權氏 慕源錄)" 저작자 권상규 죽친은 서문에서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근원없는 강물이 없듯이 우리 사람도 모두 그 유래된 바가 있으면서도 내가 항상 만날 수 있는 혈족이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더욱이 윗대 어른이나 시조에 관한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왜적의 치하에서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었는데 나라와 민족의 기원과 역사를 알기 전에 먼저 내 집안의 유래와 시조 이래 여러 집안 어른의 행장을 알아둘 필요가 없을까? 우리 권문에도 시조 태사공 아래 여러 어른들의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신 일들을 아는 동시에 그 피를 이어받은 그 자손들도 윗대 어른들의 업적을 추모하면서 우리들도 그 어른들에 못지 않은 공헌을 해야 되겠다는 분발심을 일으키기 위한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책자를 편찬하게 된 것이다... 이 책으로써 권문의 대략이라도 알게 되고 선조 여러 어른들에게 뒤지지 않게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죽친의 한 도움이 되기를 갈망한다"라고 책을 출판하는

편집국장 권행완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09차)

- ◆ 일 시 : 2020년 10월 18일(일) 오전 10시(시간엄수)
- ◆ 산 행 지 : 불암산둘레길
- ◆ 집결장소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 ◆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 장비 등(1회용 사용금지)

산악회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사무국장 권순희 : 010-3797-1874

2020년 10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 오준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20년 10월 22일(목) 오후 7시
-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령탕) 02-702-5047, 010-5358-2840
- ◆ 오시는길 : 지하철5호선 공덕역 5번 출구.
- ◆ 연락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0년 10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